

금요 수필

돌과 물이 빛은 두 개의 협곡

2019년 9월 27일, 리스케이  
에서 새벽 4시에 출발  
해 브라이스 캐니언(Bryce  
Canyon)으로 향했다. 아침 공기는 초  
가을답게 서늘하고 맑았다.

브라이스 캐니언 국립공원은 면적  
약 145㎢로, 1929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미국 유다수 남서부에  
위치한 이곳은 거대한 계단식 원형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에서  
도 손꼽히는 명소로 알려진 국립공  
원이다.

브라이스 캐니언의 골짜기에는 언  
출과 일출 때 선명한 옐로우와 백  
색의 빛깔을 띠는 암석과 흙으로 이  
부어진 대규모의 돌기둥(石柱群)이  
수백만 개나 늘어서 있다. 그야말로  
장막이다. 눈을 뜨고 바다보는 것보  
다 쉽지 않을 정도였다. 크고 작은  
현곡과 아름다운 산봉이 곳곳에 련  
쳐져 있다.

담성이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자  
연이 인기가 되는 조각처럼 이토록  
정교하고 교묘하여 신비롭게 보이  
는 수백만 개나 늘어서 있다. 그야말로  
장막이다. 눈을 뜨고 바다보는 것보  
다 쉽지 않을 정도였다. 크고 작은  
현곡과 아름다운 산봉이 곳곳에 련  
쳐져 있다.

우리 일행은 계곡을 따라 약 한 시  
간 동안 답사에 나섰다. 크게 돌러  
보려면 한나절이 걸린다고 했다. 신  
비로운 자연의 창조물 앞에서 전로  
경의를 표하게 되었다. 말을 타거나  
비행기를 이용해 둘러보는 방법도  
있다고 한다. 이곳은 11월부터 이듬  
해 3~4월까지 눈이 많이 내려 등세  
되는 구역이 된다. 지리적으로는 그  
랜드 캐니언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그랜드 캐니언과는 약 2시간 거리



송영섭  
시인·수필가

며, 시은 캐니언과도 약 2시간 떨어  
져 있다.

브라이스 캐니언에는 소나무와 전  
나무, 미루나무가 늘어서 있다. 다양  
한 포유동물과 새들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수만 개의 심세하고 기묘한  
절타 하나하나가 모두 오랜 세월 물  
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공원의  
남쪽 길에는 약 10미터에 이른다.

여행 일정을 짜자면 리스케이에서  
출발해 5시간을 달려 그랜드  
캐니언을 둘러볼 수 있다. 이후 2시  
간을 이용해 브라이스 캐니언에서  
숙박한다. 이른바 브라이스 캐니언  
을 관광한 뒤, 다시 2시간 거리의  
시은 캐니언을 거쳐 리스케이거스로  
돌아오는 일정도 가능하다.

시은 캐니언(Zion Canyon)은 스페인  
어로는 '자이온 캐니언'이다. 불린  
다. 영어식 발음으로는 '지온 캐니  
언'이다. 물론도들은 신령에 등장  
하는 시은 산의 이름을 따 '시은 캐  
니언'이라 부르기도 한다.

형형색색의 모래바위는 자연하는  
태양 아래 사막의 흔적을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싸늘한 수풀과 고원으로

둘러싸여 있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규모 면에서도, 방문객 수에서도 손  
꼽히는 명소다. 이곳 역시 미국 유  
다수에 위치해 있다.

바위로 이루어진 자이언 캐니언은  
암벽을 타고 물이 흘러내리는 풍경  
이 특히 인상적이다. 붉은 암석과  
푸른 숲이 조화를 이루며 오묘한 풍  
경을 만들어낸다. 이 지역은 1860년  
대 불모지들에게 의해 개척되었다.

협곡 바닥을 고요히 흐르는 강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강물이 쾅! 나  
간다. 이 강이 폭포와 야생 평야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높이  
수백 미터에 이르는 붉은 사암을 깎  
아내어 깎아냈다는 사실이 쉽게 믿  
기지 않는다.

인근을 흐르는 버진강은 붉은색과  
흰색이 어우러진 모래바위 사이를  
휘돌아 흐른다. 협곡의 바닥은 나무  
와 풀, 강물로 가득 차 있다. 협곡의  
벽면은 약 2,000~3,000피트 높이로  
정원을 이룬다. 공원 북쪽 지역에는  
고대 화산 지형과 석화된 나무뿌리  
가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연출한  
다.

자이언 캐니언의 높이는 지역에  
따라 1,000~3,000m까지 다양하다.  
여름에는 가운이 높이 오르는 날도  
있다. 그러나 겨울에는 비교적 온화  
한 편이다. 공원 곳곳의 도로에는  
알박이 튀어나와 있어 길이 지그재  
그로 이어진다. 여러 하이킹 코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우뚝 솟은 절벽  
사이를 여울 소리를 들으며 걷는 길  
은 특히 인상 깊다.

붉은 바위를 배경으로 한 서부극  
영화의 촬영이 자주 이루어졌다.  
'자이언'이라는 이름은 '신의 정원'  
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인지  
기묘한 바위들은 대단히 엄숙한 분  
위기를 풍긴다. 10층 아파트 수식  
재를 합한 듯한 거대한 암석들이 한  
데 어우러져 있다. 장구한 세월의  
침묵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는 듯한  
작각을 볼리워라. 가을이 되면  
붉은 단풍과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  
줄기가 어우러진다. 형형색색의 암  
석 풍경이 펼쳐지는 듯하다.

미국 서부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  
는 관광지다. 한 번쯤은 누구나 가  
보기를 권하고 싶다. 55명의 일행은  
여행을 마치고 KAL 항공편으로 귀  
국했다.

\*송영섭 수필가는 2019년 '실정문  
학' 수필부문 신인상 수상, 2024년  
월간 '문학공간' 수필 부문 신인상,  
2025년 월간 '문학공간' 시 부문 신  
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실정문학회  
상임고문이며, 2025년 서울(시) 지  
하철 공모에 입선했다. 주요 저서로  
는 '설리 역사' 시집이 있다.

사설

'학폭 감점제' 의무 시행

청소년들 사이 사이버 폭력을 일  
컸는 두 단어가 있다. SNS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때를 지어 욕설  
이나 비난을 쏟아내는 걸 '베카'  
라고 한다.

한 사람만 남겨놓고 단체 대화방  
을 나가버리는 건 '방폭'이라고  
한다. 교육부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이 7.8%에 달한  
다. 신체 폭력보다 정서적 폭력이  
중이 훨씬 높는데, 결코 가볍게 생  
각할 일이 아니다. 이런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이 올해 대  
학입시에서 대거 불합격한 걸로  
나타났다.

지역장에 있는 A 군은 지난해  
학교 친구한테 구타를 당해 눈 주  
위 뼈가 부러져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아  
도 불합감을 떨치지 못했다.

이런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 이

번 대학입시부터 '학폭 감점제' 가  
의무 시행됐다. 전국 거점 국립대  
9곳의 수시 전형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수험생 180명 가운데 162명  
이 탈락했다.

불합격률이 90%에 달한다. 강원  
대가 3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  
대와 경북대, 전북대 등이 그 뒤를  
이겼다. 서울대에는 학폭 전력 지  
원자가 없었다.

학폭 가해 처분은 정도에 따라 1  
호 서면 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이름 단계로 분류된다. 처분 호수  
가 높을수록 대학 입시에서 감점  
폭이 커진다.

문체부 산하 대학인 한국예술총  
합학교도 이번 입시에서 학폭 가  
해 학생을 합격시켰다가 뒤늦게  
취소했다.

학폭 감점제는 지금 진행 중인  
정시 전형에도 똑같이 의무 적용  
되는 만큼, 불합격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폭발음은 잠깐이었지만,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마  
두로 대통령은 눈과 귀가 가려진  
채로 압송돼 미국 뉴욕 구치소에  
수감됐다.

타코 정상에 미국이 적용한 혐  
의는, 마약 공모와 밀수다. 재판도  
진행 중이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  
를 태운 항공기는 뉴욕에 도착했  
다.

항공기는 곧바로 격납고로 향했  
고, 어두워진 시각 조심스럽게 내  
려오는 사람이 포착됐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였다.

이번엔 헬리콥터를 타고 맨해튼  
으로 이동한 뒤 다시 마약 단속국  
뉴욕 지부로 가서 지문 채취 등  
의 절차를 거쳤다. 그는 '좋은 밤'  
'이라며 잠시 여유로운 모습을 보  
이기도 했다.

그는 "좋은 밤입니다. 그렇죠?  
좋은 밤이요. 행복한 새해 되  
세요." 그리고 밤 9시쯤 뉴욕시

브루클린에 있는 구치소에 수감  
됐다.

미 동부 시간 기준 새벽 3시 반  
쯤 베네수엘라를 떠나 관타나모  
기지를 거쳐 구치소까지 마두로  
대통령에게 긴 하룻밤이다.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이곳 뉴욕  
까지 이송된 이유는 재판을 받을  
곳이 연방 뉴욕 남부 법원이기 때  
문이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인 2020년 이미 이  
곳에 기소됐다.

마약 테러 공모와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등의 혐의다. 이번에 보원된 공소  
장에는 기소 대상에 그의 부인과  
아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등이  
추가됐다.

마약 테러 공모 혐의만으로도 최  
소 20년의 형을 받을 수 있어 그  
는 여생을 미국 교도소에서 보내  
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은 바로  
시작됐다.

독자재언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  
통사고를 많이 보게 된다.

목숨을 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이  
마신 음주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  
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마신 양보다  
적게 마셨다고 생각하거나 운전이 지  
장이 없을 정도로만 마셨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마신 술의 양과 관계없이 음  
주 후 행동을 잡는 행위는 목숨을 담  
보로 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후배와 같이 술

음주운전·방조행위의 위험성

을 마시다가 후배가 집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하자 자신의 자동차열쇠를  
발려줬다.

후배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  
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두 대  
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무심  
코 자동차열쇠를 빌려준 선배는 음  
주운전 방조혐의로 약식 기소된 일  
이 있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  
운전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술 취  
한 일행에게 자동차열쇠를 건네주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방조범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알아야  
한다.

신체에 알코올이 흡수되면 안전운전  
을 위한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무뇌  
작용이 느껴져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  
을 내릴 수 없게 되며, 잘못된 자신감  
을 갖게 하여 실제보다 운전을 잘한다  
는 착각을 불러 일으켜 더 위험한 운  
전을 하게 만든다.

또한 눈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자신

의 주행 속도와 다른 차량의 속도 및  
다른 자동차, 보행자, 장애물 등을 관  
단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핸들 조  
작과 동시에 교통신호를 보고 다른 차  
량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등 운전이 반  
드시 필요한 동시다발적인 행동을 정  
상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장 위험한 건 자칫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사고가 난다는 것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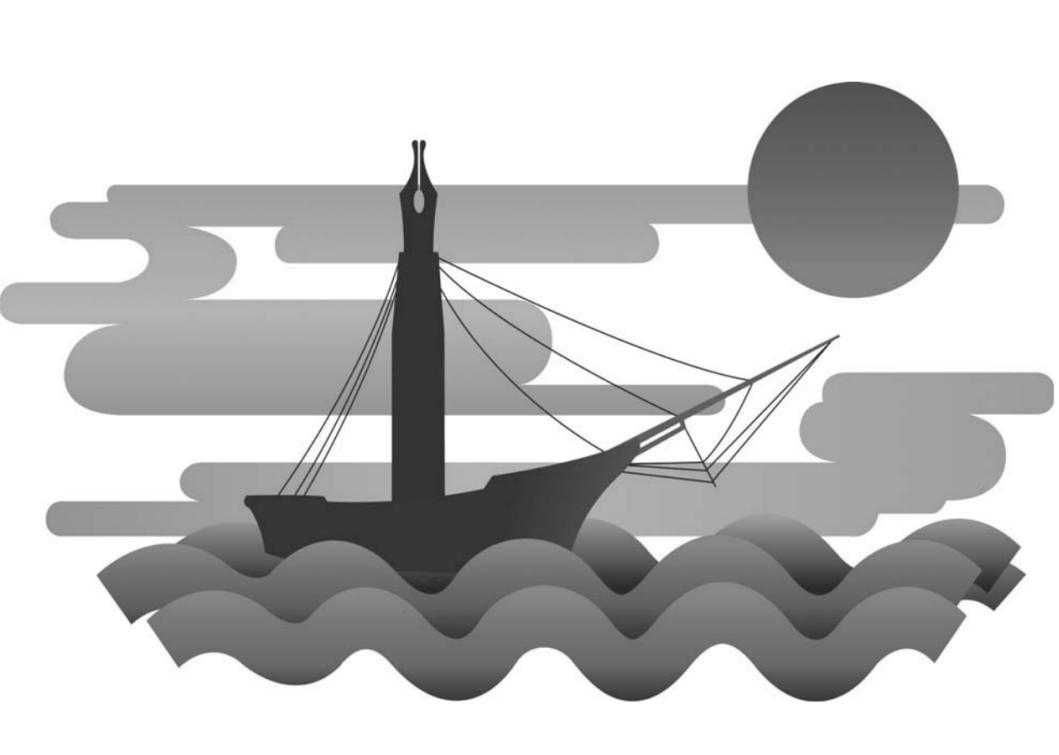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음  
주운전, 그리고 방조행위는 절대 해서  
는 안 되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  
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진제 원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소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